

재경부, 세계개편안 주식양도차익과세면제

재정경제부(장관 한덕수)는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번 달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세계개편안에 따르면, 이르면 7월부터 코스닥과 제3시장에서 소액주주의 범위가 기존 보유 지분 3%, 100억원 미만에서 5%, 5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또 제3시장에서는 소액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차익의 20%를 과세했으나, 벤처기업의 소액주주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한국벤처투자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출자 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가 이뤄진다. 즉, 한국벤처투자조합 출자자에 대해서도 ▲개인투자자가 출자한 금액의 15% 소득공제 ▲배당·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조합이 조합원에게 분배 시 원천징수 ▲벤처기업 주식 양도 시 양도차익 비과세 등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자와 같은 수준으로 세계지원을 하게 된다.

이울러 올해 코스닥 시장에 새로 등록된 벤처기업들은 소득금액의 30%를 사업 손실준비금으로 쌓아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하고, 적립된 준비금을 그 이후 사업연도 손실 발생 시 상계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들은 법인세를 경감 받고 경영 손실의 위험 감소를 지원 받는 효과가 생기게 된다.

산자부, 부품소재 개발 1600억 투입

산업자원부(장관 이회법)는 올해 핵심 부품·소재 기술개발을 위해 1600억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이 가운데 신규 과제에 총 768억원을 배정한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지난 1월 확정된 '부품소재 산업발전 전략'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세부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새롭게 지원되는 신규과제와 지원규모는 ▲전기·전자, 자동차, 기계업종의 10대 전략 부품·소재 350억원 ▲섬유·화학·금속 및 전자장비 118억원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대비 수입급증 우려품목 100억원 ▲투자기관 연계형 단속기술개발 과제 200억원 등이다. 산자부는 올해 착수되는 과제가 완료되는 오는 2009년쯤 총 4100억원의 수입대체와 2만 2000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기청 비아이넷 구축 서비스 시작

중소기업청(청장 김성진)은 전국 289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 있는 7300여 중소벤처기업을 네트워크화한 '비아이넷(www.bi.go.kr)'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시작했다. 비아이넷은 한국창업보육협회와 한국컨설팅협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데, 창업보육협회는 센터 현황 등 각종 현황 자료 등 시스템을 관리하고, 창업보육과정에서 필요한 고급정보 등 콘텐츠 정보는 한국컨설팅협회에서 전문 컨설턴트를 활용해 운영한다.

서비스의 본격적 가동으로 창업보육센터와 입주 기업들 간에 상호간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정보 공유의 장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또한 예비창업자를 위해 입주 가능한 창업보육센터의 공실 현황을 제공하고 함께 시장조사 및 컨설팅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게 된다.

입주기업과 창업보육센터 등 내부이용자들은 시장조사·컨설팅 사례 등의 고급정보와 자금 인력 기술정보 등의 정부지원정책 정보, 창업 강좌·창업보육센터 운영 매뉴얼 등 각종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입주기업은 한국컨설팅협회와 1:1 맞춤형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신보·기보, 벤처보증 확대

신용보증기금(이사장 배영식, 이하 신보)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사장 박봉수, 이하 기보)에 따르면 신보와 기보는 3·4월 벤처기업 지원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선도형기업보증과 기술평가보증에서 각각 1조 1135억원과 3537억원을 보증했다. 이는 두 기관의 1·2월 보증합계인 2795억원과 1467억원에 비해 300~400%가량 늘어난 규모다.

신보 관계자는 "1·2월의 경우 기업들의 신청이 적는데다가 평가하는 데 시간이 소요돼 많은 업체들을 지원하

지 못했다”면서 “앞으로 보증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신보의 혁신선도형 중소기업보증은 올해 5조 6000억원이 잡혀 있으며, ▲벤처기업 및 기술혁신형(이노비즈) 중소기업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첨단기술력,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 영위기업 등이 대상이다. 기보의 기술평가보증은 기업의 재무상태보다는 보유한 기술을 평가해 보증하는 것으로 올해 2조 5000억원이 예정돼 있다.

장 외 기 업 코 스 닥 시 장 노 크 활 발

코스닥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장외 기업들이 크게 늘고 있다. 코스닥시장이 최근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하반기에 회복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정부의 벤처활성화 정책, 코스닥 진입요건 완화 등으로 상장여건이 예전보다 좋아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내년부터는 상장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도 코스닥 상장에 속도를 내는 계기가 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올해 코스닥 상장 심사를 신청하는 기업이 100개를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실제로 최근 증권사와 기업공개를 위한 주간사 계약을 맺는 장외기업이 크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코스닥 상장을 위해 증권사와 주간사 계약을 체결한 장외기업은 모두 102개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0개사에 비해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코스닥 진입을 시도하는 장외기업이 크게 늘어난 이유로 정부의 벤처활성화 정책과 바이오산업 육성 등을 꼽는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정감사인 제도와 2007년 전면 시행되는 집단소송제도도 장외기업의 상장을 부추겼다는 분석이다.

한 국 과 학 기 술 정 보 연 구 원 , NT 벤 처 · 중 소 기 업 100개 돌 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원장 조영화) 나노정보분석실이 발간한 <나노기술연감 2004> 사전 자료 집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나노기술 제품을 개발, 판매하기 위해 창업한 벤처 및 중소기업은 2004년 기준으로 104개에 달했다. 나노기술 분야에 신규로 진출한 대기업과 아직 연구개발 단계에 있는 기업부설연구소까지 포함하면 국내에서 나노 관련 기업은 131개사에 이른다. 이 같은 통계는 아직까지 국내 나노기술 산업 수준이 연구 및 시제품 수준의 제품 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려져 온 것과 달리 실제로는 기업들이 보유한 나노기술 관련 연구개발 성과를 토대로 제품을 양산하는 등 본격적인 성장을 맞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전체 중소기업과 벤처 104곳 가운데 지난 2002년 이후 창업한 회사가 8군데 중 1개꼴인 13개사로 집계돼 최근 2~3년 사이 나노기술 기업의 급성장세를 반영했다.

벤 처 캐 피 털 , 투 자 는 줄 고 회 수 는 늘 고

벤처캐피탈협회(회장 고정성)가 발표한 ‘벤처캐피털 2005년 1분기 투자동향’에 따르면 지난 3개월 동안 105개 창업투자회사가 IPO 등을 통해 회수 투자자금은 1294억원으로 전년 동기 636억원에 비해 103.4% 증가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말 벤처산업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벤처산업에 대한 회생에 기대감과 코스닥시장의 회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벤처캐피탈협회 관계자는 “2000년 이후 계속된 벤처캐피털의 침체가 2003년을 바닥으로 지난해부터 다소 회복된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며 “정부의 활성화대책과 벤처캐피털업계가 지난해까지 투자 주식의 부실을 대거 정리하는 등 올해부터는 회복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3월 말 현재 창업투자 잔액은 2조 3307억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2535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투자 역시 998억원으로 전년 동기(1124억원)에 비해 11.21% 감소했다. 이는 창투자 및 투자조합 수가 지난 2004년 3월 말 각각 117개, 428개에서 금년 3월 말 현재 105개, 415개로 감소했으며 벤처투자조합 결성 또한 예년보다 늦어진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산업은행, 특허기술 담보로 사업자금 대출

한국산업은행(총재 유지창)은 특허청과 '우수 특허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력 약정서'를 체결하고 특허를 담보로 한 사업화 자금을 대출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부동산 등 담보 없이 특허만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하는 국내 최초의 기술력 기반 대출제도다. 지원규모는 연간 1000억원에 달한다.

그간 우수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부동산 등 현물담보가 없어 대출이 어렵던 중소·벤처기업들이 사업화를 위한 자금 확보가 쉬워질 전망이다. 산업은행은 우선 '외부전극형 방전관의 제조장치' 특허를 보유한 램프 제조업체인 플라즈마 램프에 5억원을 대출했으며 3개 회사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특허의 가치심사는 산업은행 내 산업기술부에서 맡고 특허청은 기술평가에 소요 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군인공제회, 벤처기업 투자 본격화

군인공제회(이사장 김승광)는 환경·레이저·대체에너지 개발 등 신수종 사업과 관련한 벤처투자를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환경·레이저·대체에너지 개발업체뿐 아니라 생명공학과 신약개발 업체에 대해서도 지분투자를 확대해 간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와 함께 벤처펀드와 구조조정펀드에 대한 투자도 늘리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KTB구조조정펀드에 150억원, 무한벤처투자자 TGV벤처투자자 각각 100억원, 나스닥 상장을 원하는 업체들에 투자하는 코리아글로벌IT펀드에 160억원을 투자했다. 벤처펀드 등을 통한 국내외 간접투자 규모는 모두 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군인공제회의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수십개 벤처투자조합을 통해 2500억원 가량을 투자해 수익을 내고 있는 것과 같이 앞으로 부동산 개발, 대형 우량기업 M&A 뿐 아니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 군인공제회가 하이닉스·현대건설·대우건설·대우인터내셔널·우리금융지주·외환은행·LG카드 등 대형 M&A 매물에 참여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경우 벤처업계에서도 큰손으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IT분야 해외유학지원사업 안내

행사 개요

■ 주 최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 사업목적

국내 IT분야 우수인재가 해외 우수대학 등에서 박사후 연수(Post-Doc)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고급 IT 전문인력을 양성

지원 내용

■ 지원인원 : 총 50명 수준

■ 지원내용 : 최장 2년간 체제비로 연 2만 USD 수준 지원

※ 체제비는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의 국외훈련비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지원

※ 연수기관 지원금이 상기 지급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1/2을 공제한 후 지원

■ 지원분야 : 차세대 이동통신, 지능형 로봇, IT SoC, 홈네트 워크 등 IT 기술 및 정책 분야

신청 방법 및 접수 처

■ 신청자격 : 외국의 기업체나 연구소, 우수대학에서 박사후

연수계획을 가진 만 45세 미만의 자로 국내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2005년 8월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 접수마감 : 2005년 5월 30일(월) 오후 5시까지

■ 신청서 교부 및 접수방법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홈페이지(www.iita.re.kr)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여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홈페이지에 전산접수 후 신청서 8부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우편제출은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접수 및 문의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암동 58-4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인력양성사업단 연구인력팀 (우)305-348 (전화 : 042-710-1325, 팩스 : 042-710-1329, 이메일 : kjh@iita.re.kr)

기 타

■ 선정자는 선정확정 후 6개월 이내에 출국하여야 함

■ 선정자는 연수 종료후 2년 이내에 연수내용과 관련된 논문 1편 이상을 정보통신부 지원임을 명기하여 SCI(E)에 등재된 국제저널에 게재하여야 함



▲ 2005년 5월 3일 전자신문 17면

벤처패자부활제 의 '1차 도덕성평가기관' 으로 지정된 협회가 도덕성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달 중 신청자 접수공고를 내고 본격 시행할 예정임을 보도한 기사



▲ 2005년 5월 2일 머니투데이 13면

벤처기업협회가 벤처업계를 대표하는 협회로서 경제6단계로 명명될 수 있도록 규모와 비중을 갖추고자 노력할 것임을 밝힌 협회 조현정 회장의 인터뷰 기사

제 14회 동경 소프트웨어개발박람회 참가업체 모집 안내

한국여성벤처협회에서는 국내 여성기업들의 일본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 활성화를 위해 일본 동경에서 열리는 일본 최대 전문 S박람회인 제14회 동경 소프트웨어 개발박람회 참가를 지원한다.

행 사 개 요	참 가 신 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명 : 제14회 동경소프트웨어개발박람회 ■ 주최 : Reed Exhibitions Japan LTD. ■ 기간 : 2005년 6월 29일 ~ 7월 1일 (3일간) ■ 장소 : Tokyo Big Sight (일본 동경) ■ 전시품목 : 소프트웨어 개발 및 보수, 운용을 위한 각종 제품 및 기술, 소프트웨어 개발환경에 관한 모든 첨단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방법 : 참가신청서 제출 (팩스 : 02-6009-8502) (계좌번호 : 기업은행 449-000311-04-121/ 예금주 : 한국여성벤처협회) ■ 신청마감 : 선착순 접수마감(11개사 모집) ■ 참가비 : 50만원 ■ 신청서류 : 참가신청서 및 서약서(소정양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회사소개서, 전시품목 상세서, 참가비 입금증 사본 각 1부 ※ 참가신청은 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소정양식(참가신청서, 서약서) 및 제반서류를 팩스 또는 우편으로 송부 ※ 출장자 항공료 및 체제비는 개별부담임 ※ 참가업체 선정 후 참가 취소 시 참가 신청금은 환불하지 않음
행 사 내 용	참 가 신 청 문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 행사 : Technical Conference 개최, Software Development Industry 최신동향 설명, 정책설명 ■ 참가업체 지원범위 및 계획 : 부스임차료 전액 지원, 기본장차비 70% 지원, 공동 홍보물 제작 지원, 통역도우미 지원 (비즈니스 미팅룸 전용 통역요원, 업체는 개별신청) ※ 상기 외 나머지 경비(추가 장치비, 운송료, 인터넷 설치, 홍보물 제작, 항공료, 체제비)는 업체부담임 	<p>한국여성벤처협회 사무국 (02-6009-8500~1, 팩스 : 02-6009-8502) 이메일 : kowwa@kowwa.or.kr 또는 kovwa04@empal.com</p>

여성벤처협회

NEWS